

‘이경원’의 사망년도와 이효석의 만주 기행문에 대한 연구*

노상래**

|| 차례 ||

- I. 서론
- II. 이경원의 사망년도에 대한 의문
- III. 만주 기행문에 그려진 하얼빈
- IV. 이효석의 만주 기행문 들여다보기
- V. 결론

【 】

이효석은 1939년과 1940년, 두 번에 걸쳐 만주(하얼빈)를 여행한다. 이 여행 후 그는 여행 소회를 매번 소설과 수필로 발표한다. 첫 번째 여행 후에 남긴 소설 『벽공무한』과 수필 『大陸の皮(대륙의 껍질)』, 그리고 두 번째 여행 후에 남긴 소설 『哈爾濱』과 수필 『新しさと古さ(새로운 것과 낡은 것)』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여행과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이효석의 아내인 이경원의 사망년도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녀의 사망년도는 1940년 1월이었다. 그럴 경우 두 번째 여행에는 어떤 형식으로건 그녀의 죽음이 여행과 기행서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은 그녀의 사망년도가 1941년 1월을 가리키고 있다. 이 경우 두 번째 여행을 바탕으로 한 기행서사에 그녀의 사망에 따른 감정이 스며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은 이효석의 문학 작품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기행 서사를 중심으로 하얼빈을 바라보는 여타 작가들과 이효석

* 이 논문은 2018년도 영남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218A380087)으로 이루어졌음.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의 시선의 차이를 드러내려 했다. 많은 기행 서사들은 하얼빈에서 애로와 향락을 잃어낼 때 이효석은 다른 시선을 보여주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효석의 친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데 보탬을 주려 했다.

주제어: 이경원의 사망년도, 기행문, 하얼빈, 애수, 친일

I. 서론

만주국 성립 후 만주 기행은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¹⁾ 그리고 기획했던 그렇지 않았던 기행문은 생성되었고, 하얼빈에 대한 기억은 하나의 경향을 만들어 냈다. 그 경향은 정치적 감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하얼빈 기행의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외국 풍경’이 자아내는 이국정서(exoticism)이고, 다른 하나는 백계러시아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하얼빈 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다. 부정적 시선을 구성하는 것들은 카바레(판스홀)와 춤, 술, 음악, 그리고 마약과 매춘 등이며, 이들은 애로와 환락으로 수렴된다.

대부분의 만주 기행문은 신문이나 잡지사의 기획에 의한 것으로 취재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제가 자신들의 정책에 호응하는 만주 담론을 조성하려 했던 것과 유관하다.²⁾ ‘동양의 파리’³⁾, ‘동양의 모스크-’⁴⁾로 불리던 하얼빈은 만주국 성립 이후 일제의 ‘총병참가지’로 바뀌어 갔고,

1)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허경진·강혜중, 『근대 조선인의 만주 기행문 생성 공간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7집, 2011, pp.244-248 참조할 것.

2) 강혜중, 『20세기 ‘국제도시’의 기억-1920~30년대 조선인의 만주기행문 속 하얼빈』, 『중국학논총』 34집, 2011, p.99.

3) 이운국, 『哈爾濱의 露人 에미그란트』, 『조광』, 1939. 8., p.97.

4) 방건두, 『북만주유기』, 『조선일보』, 1935. 5. 24.

조선인의 하얼빈 기행은 이런 정치적 변화기와 맞물려 있다.⁵⁾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국정서를 말하는 기행문들에서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으니, 애수(哀愁)가 그것이다. 애수는 찬찬히 뜯어보면 ‘넓고 그윽한 것의 사라짐’⁶⁾에서 오는 연민의 감정이다. 조선인에게 하얼빈, 특히 백계 러시아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나 삶의 흔적에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자아냈고, 거기서 연유한 감정이 애수였다. ‘넓고 그윽한 것의 사라짐’은 몰락을 의미하고 백계러시아인에게나 조선인에게 민족 혹은 국가의 몰락은 공통분모였다. 결국 백계러시아인들의 삶은 조선인의 삶을 비쳐주는 거울이었던 셈이고 하얼빈은 애수를 불러일으키는 매개물로 작동했다.

애수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움이 없어 여행자의 감상적 차원에 그쳤다 하더라도 애수는 정치적 감각으로 볼 때 놓쳐서는 안 될 감정이다. 왜냐하면 애수에는 양가적 가치 혹은 감정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만주국, 나아가 일제의 정책에 동조하기 위한 발걸음의 전조 단계의 감정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비껴가는 감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얼빈을 ‘유적의 도시’라거나 만주국의 일원이 되어 도시를 갱생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시선⁷⁾은 현실적이면서도 정치적 감각을 민감히 드러내는 전자의 대표적인 입장이다. 이효석의 경우 전자의 입장인지 후자의 입장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그의 정치적 감각을 탐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5) 하얼빈 기행문의 발표 시기와 내용, 그리고 성격에 대한 것은 강혜종의 앞의 논문을 참고할 것.

6) 이효석은 이런 감정을 “넓고 그윽한 것이 허덕어리며 물러서는 뒤사자리에 새것이 부락스럽게 밀려드는 꼴”이라 표현한 바 있다.(이효석, 『합이빈』, 『이효석전집』 3, 창미사, 2003, pp.109-110. 이하 『이효석전집』은 창미사본을 의미함.)

7) 김찬구, 『신흥만주인문풍토기-합이빈』, 『만선일보』, 1940. 11., 강혜중, 앞의 글, p.109, 재인용.

이효석은 두 번에 걸쳐 만주 기행을 하고 그 단상을 글로 발표한다. 그런데 두 번의 만주 기행과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아내 이경원의 사망에 관한 것이다. 두 종의 전집에는 사망년도가 1940년으로 표기되어 있다.⁸⁾ 그리고 이상옥도 그렇게 주장한다.⁹⁾ 이럴 경우 이효석의 두 번째 하얼빈 여행은 참척을 잠시나마 위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효석은 “아내를 잃은 지 석 달에 비오는 날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 눈물 뒤에 슬픔은 한층 깊고 날카롭게 속으로 파고든다”¹⁰⁾라고 고백하고 있어, 아내를 사별한 이효석이 ‘마음의 마지막 다다름이 슬픔’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떠난 여행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료를 읽어 가면서 의문이 생겼다. 그것은 이경원의 사망년도가 1940년이 아니라 1941년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두 번째 만주 기행과 관련된 글은 아내를 잃은 참척의 마음과는 무관한 글들이 될 것이다. 사망년도를 바로 잡는 일은 사망을 기점으로 하여 발표된 이효석의 문학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 논문은 만주 기행문에서 보여준 이효석의 현실 대응 방식과 그 기행문을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이경원의 사망년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효석의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보탬을 주려 한다.

8) 『이효석전집』 7, 창미사, 2003, p.364. 이효석문학재단 엮음, 『이효석전집』 6,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528.

9) 이상옥, 『이효석-문학과 생애』, 민음사, 1993, pp.288-295.

10) 이효석, 『한식일』, 『신세기』, 1941년 6월호, 『이효석전집』 7권, p.321.

II. 이경원의 사망년도에 대한 의문

지금까지 이효석의 연보나 연구서에는 대부분 아내 이경원과 차남이 1940년에 약 3개월 시차를 두고 잇따라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장녀가 발간한 『이효석전집』(창미사)이나 장남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이효석전집』(서울대출판문화원)의 연보는 물론이고 이효석 연구에 일가견이 있는 이상옥도 이효석의 첫 번째 하얼빈 여행과 두 번째 여행 사이에 이경원과 차남의 연이은 죽음—이경원은 1940년 1월에 북막염으로 사망하며, 뒤이어 차남 영주도 사망—을 놓는다.¹¹⁾ 특히 유가족이 발간한 전집에 이경원의 사망년도를 1940년이라고 확정하고 있어, 제3자가 사망년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두 번째 여행 후 발표한 소설 『哈爾濱』과 수필 『新しさと古さ(새로운 것과 낡은 것)』에는 첫 번째 여행의 결과물인 『벽공무한』이나 『大陸の皮(대륙의 껍질)』를 쓸 때와는 전혀 다른 감성, 즉 아내와 사별한 슬픔이 어떤 방식으로건 스며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벽공무한』과 『합이빈』 사이에 놓인 감정적 무늬의 차이를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효석의 자료를 독해하던 중 필자는 사망년도와 관련하여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사망년도가 1940년이 아니라 1941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효석은 수필 『한식일』에서 '아내를 잃은 지 석달에 비오는 날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글이 발표된 것은 『신세기』 1941년 6월호이지만 실제 집필을 마친 날짜는 '1941년 4월 11일'이라고 부기해뒀다.¹²⁾ 만약 이경원이 죽은 해가 1941년이라면 '아내를 잃은

11) 이상옥, 앞의 책, pp.288-295.

지 석달'이라는 표현은 적절하다. 음력 12월 19일, 즉 양력 1월 27일에 이경원이 사망했으니, 1941년 4월 11일은 대략 '석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천리』 1940년 4월호에는 「문사부인의 화사집」이란 특집이 실리는데 이효석의 부인인 이경원도 수필 「생활의 산어(散語)-소설가이효석씨부인」¹³⁾을 신는데, 필자 소개로 간략하게 「나남고녀 출신」이라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생활의 산어」는 가정주부의 역할과 취미 활동에 대해 기록한 글이다. 주부로서 그리고 당대 신여성 아내로서 이경원의 생각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글이다.

주부는 아해한데만 매워지내지말고 밖갓주인께서 부자유하지 않도록 피복 류같은데 대해서는 항상 세밀한 주의를 해야겠읍니다. 집에 식모만 있으면 일절을 식모에게 매끼는 사람을 혼이 보는데 이것은 대단히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이사쓰, 양말, 손수건, 구두다기 등 일절을 주부가 손수해서 드리는 것이 그 가정에 미풍이 아닐가 합니다.¹⁴⁾

이 글을 통해 이경원은 매우 가정적이며 소박한 아내였고 전통 질서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수필이 실린 잡지의 발간일은 1940년 4월 1일이었지만 실제 집필은 잡지가 발간되기 전인 3월 어느 날이었을 것이니, 최소한 1940년 3월 어느 날까지는 이경원이 생존하고 있었을 것이다.¹⁵⁾

또 다른 자료도 1941년 사망을 뒷받침해준다. 이효석은 『삼천리』 1940년

12) 『이효석전집』 7, p.323.

13) 이경원, 「生活의 散語 - 소설가이효석씨부인」, 『삼천리』 1940년 4월호, pp.298-299.

14) 위의 글, p.299.

15) 이 수필이 이경원이 사망한 1940년 1월 이전에 쓰여 『삼천리』 1940년 4월호에 실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삼천리』사 측에서는 글 말미에 유고작이라고 밝혔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경원이 살아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7월호에 수필 『괴로운 길』을 발표하는데, 실제 되고 날짜는 1940년 6월 5일로 부기되어 있다.¹⁶⁾ 이 수필은 어느 회갑 집에 갔다가 겪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다. 이효석은 회갑 집에서 코피를 5, 6홉이나 쏟고 쓰러졌는데 응급처치를 해도 코피는 멎지 않다가 겨우 밤 9시쯤 코피가 멎었고, 코피가 멎은 지 한 시간쯤 지난, 밤 10시경 좀처럼 불려도 오지 않던 의사 둘이 내왕하여 빈혈증이라고 진단했다. 겨우 몸을 추슬러 귀가 후 자리에 누운 것이 자정을 넘은 때였다. 다음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술한 내용이다.

홀연히 짧은 잠이 들었다가 문득 눈을 뜨니 또 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억제할 수 없이 콧물 쏟아지는 맹렬한 출혈이다. 순식간에 수건과 대야와 요 위에 흥건하다. 두 번째 번에 대경실색해서 앞집에 가 병원으로 전화를 아무리 걸어야 통하지 않는다.

집사람이 밤거리를 황겁지겁 뛰어가 의사를 데려왔을 때에는 오전 두 시로 피는 이미 멎은 뒤다.¹⁷⁾ (강조: 인용자)

1940년 6월에 발표된 수필이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5월 어느 날이었다. 따라서 ‘집사람이 밤거리를 황겁지겁 뛰어’다닌 1940년 5월 어느 날까지 이경원은 살아있었다. 이 수필에는 ‘2월 이래 두 가지의 장편소설에 붙들려 400자 900매의 원고를 써오는 중’이라는 정보도 제공되는데, 이는 『綠の塔』(『국민신보』 1940. 1. 7~1940. 4. 28.)과 『창공』(『매일신보』 1940. 1. 25~7. 28.)을 두고 하는 말이며, 이 수필이 팩트에 근거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이 글이 발표된 뒤 얼마 있지 않아 이효석은 『산협의 시』¹⁸⁾라는 수필을

16) 『이효석전집』 7, p.303.

17) 이효석, 『괴로운 길』, 『이효석전집』 7, p.303.

18) 『조선일보』 1940. 7. 30.

발표한다. 이 수필은 1939년 1차 만주 기행에 이어 1940년의 2차 만주 기행을 떠나기 직전의 소감을 밝힌 글이다. 이 수필에는 “올에도 또 한 바퀴 만주를 돌아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다. 작년에는 수박의 껍만을 핥고 돌아왔으나 올에는 좀 더 자세히 신경, 하얼빈 등지를 보고 오려는 것”¹⁹⁾이라는 대목이 있다. 수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큰 슬픔을 당한 뉘앙스의 표현 대신 너무나 평상심이 깃든 표현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어디에서도 아내를 잃은 슬픔의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다.

김남천 또한 이경원이 1941년에 사망했음을 입증해준다.

昭和十六年正月에 나는 故郷 가까운 어느 시골 溫泉에서 孝石의 편지를 받았다. 몸이 불편해서 朱乙서 靜養을 하던 中 夫人이 갑자기 편치 않다는 기별이 와서 지방 平壤으로 돌아왔는데 病名이 腹膜炎이어서 救하기 힘들 것 같다는 총망중에 쓴 편지였다.

그 뒤 夫人의 病을 간호하면서 쓴 간단한 엽서를 한 장 더 받고는 이내 訃告였다.²⁰⁾ (강조: 인용자)

소화 16년은 1941년이다. 불과 1년여 전의 일을 김남천이 기억하지 못해 1940년에 일어난 일을 소화 16년에 일어난 것으로 착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을 신뢰한다면 이경원은 1941년 정월에 사망한 것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자료는 이경원의 사망년도를 1941년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 퍼즐을 맞출 마지막 조각이 이효석이 최정희에게 보낸 서간이다. 그런데 이 편지에 대한 집필 시기가 모호하다. 서울대출판본에는 이효석이 최정희에게 보내기 위해 ‘1940년 5월 22일’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²¹⁾ 하지만 창미사본에는 수신인이 최정희가 아니라 장덕조로 되어 있으

19) 『이효석전집』 7, p.305.

20) 김남천, 『孝石과 나』, 『춘추』, 1942년 6월호, p.118.

며, 연도 없이 '5월 22일'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다.²²⁾ 그리고 두 전집 모두 출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 개인 소장물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사료 수집가인 김종욱이 2003년 8월 29일 연합뉴스를 통해 미공개된 이효석의 작품 셋을 공개하는데, 그 가운데 최정희에게 보낸 서간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둘은 일본어소설 『録の塔』과 수필 『新秋』이다.²³⁾ 따라서 서간문의 수신인은 최정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미궁인 것은 편지의 작성년도가 정말 <1940년>인가 하는 것이다. 두 전집 모두 <5월 22일>이라는 월일은 공통되나 서울대출판본만 '1940년'이라고 연도를 밝히고 있어서 어쩌면 편지에는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군가 추정해서 전집 출간 당시 첨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던 중 이상욱 교수가 서울대출판본을 발간할 당시 서간문 내용을 보고 연도를 추정하여 '1940년'으로 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았다. 최정희에게 보낸 서간문 원본을 입수하여 연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원본 자료를 입수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했다.²⁴⁾

지금까지 이경원은 1940년에 사망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 이경원의 사망년도에 굳이 천착하는 이유는 이효석의 두 번에 걸친 하얼빈 여행과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들을 해석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경원의 죽음은 두 번째 여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행서사를 해석하는데 주요 정보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이효석문학재단, 『이효석전집』 5, 서울대출판문화원, 2016, p.409.

22) 『이효석전집』 6, 창미사, 2003, p.384.

23) <https://entertain.v.daum.net/v/20030829021604972?f=o>.

24) 필자의 생각에는 서간문 원본에 '1940년'이라는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Ⅲ. 만주 기행문에 그려진 하얼빈

하얼빈은 중국 최초의 맥주, 백화점, 택시가 출현했을 정도로 1930년대 만주를 대표하던 모던의 도시였다. 그리고 러시아혁명 후 하얼빈으로 피난한 ‘백계 러시아인’, 특히 유대계 음악인들은 일본 클래식 음악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한다.²⁵⁾

하지만 하얼빈은 제국의 도시였으나 제국의 욕망이 고스란히 발현되는 곳은 아니었다. 특히 하얼빈 거주 조선인들에게는 그러했다. 하얼빈 거주 조선인은 2등 국민의 <자랑>을 앞세워 제국의 대행자 행세를 하며 하얼빈에서 권력의 완장을 앞세울 수는 없었다. 『벽공무한』에서 백만의 자본으로 하얼빈에서 약방 ‘대륙당’을 경영하는 ‘한운산’처럼 드물게 부를 축적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절대 다수는 절대 빈곤에 노출되어 있었다. 하얼빈의 조선인 90퍼센트가 아편 밀매와 연관업(煙管業)에 종사했다는 보고도 있고²⁶⁾, 하얼빈의 접객업 종사자 비율은 조선인이 61.4% 정도로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월등히 높았다²⁷⁾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하얼빈은 절실한 생존의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얼빈 여행기에는 이런 조선인의 삶이 적실하게 보고되지 않는다. 여행기의 하얼빈은 이국정서에서 느끼는 신비로움과, 환락과 애로를 먹고사는 퇴폐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양가적 가치는 오죽협화에 의한 왕도낙토 건설이라는 만주국의 표어와는 달리 하얼

25) 한석정, 『만주 모던 -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016, pp.64-65.

26) 박강, 『만주사변 이전 일본과 재만 한인의 아편·마약 밀매 문제』,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35집, 2003, p.325.

27) 윤휘탁, 『만주국 정부의 민족 구성과 운영상의 특징』, 『중국근현대사연구』 43집, 2009, pp.303-305.

빈은 시국·국책에의 부응이라는 기준에서 다소 비껴나 있는 공간으로 읽힐 여지를 준다. 이는 역설적으로 시국·국책에의 부응을 요구하는 대목으로 읽힐 수도 있다. 여행기는 정치적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제국 의식의 심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글쓰기로 장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얼빈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여행 경로는 당시 수학여행단의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학여행단의 탐방 경로는 대략 ‘합이빈역 →중앙사원→충령탑→이지사지비(二志士之碑)→공자묘→로인지묘(露人墓地)→송화강’ 순이었다.²⁸⁾ 당시 조선인 작가나 언론인들의 하얼빈 여행이 이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겠지만 상당수는 겹쳤을 것이다. 제국의 신민이지만 자신이 제국의 중심이라는 소속감에서는 비껴나 있는 조선인의 하얼빈 여행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홍종인은 하얼빈을 ‘애절한 다방 처녀, 술과 춤과 여자의 카바레’로 묘사하고 있다.²⁹⁾ 하얼빈이 ‘아일만(我日滿) 양국의 국제국방기지로써 산업오개계획의 북만중추지로서 민족협화실천의 제일선 중점지’³⁰⁾임에도 불구하고, 하얼빈은 ‘술’ ‘춤’ ‘여자’의 도시로 읽히기가 십상이었다.

에로도시 합이빈, 하르빈의 밤은 댄스홀에서 시작되고 댄스홀에서 샌다. 이곳에서 댄스못하면 병신이다. 차를 한잔 먹으러 카페에 들어가도 음악밴드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 춤을 추며 하로날의 감안을 받으러 청루에 올라가도 피아노가 있고 댄스홀이 설비되어있다. 고국이 없고 민족의 목표가 없는 백계로인들은 찰나의 흥분을 찾으며 순발적 기분에 살고있다. 젊은계집들은 여창으로 댄서로 매음녀로 전락하고 잇스니.....³¹⁾

28) 임성모, 「1930년대 일본인의 만주 수학여행-네트워크와 제국의식」, 『동북아역사논총』 31호, 2011, p.175.

29) 홍종인, 「에수의 하르빈」, 최삼룡·허경진 편, 『만주기행문』, 보고사, 2010, 여기저기.

30) 홍양명, 「哈市東滿間島瞥見記」, 위의 책, p.380.

신기석은 ‘백계로인들’이 ‘찰나의 흥분을 찾아 순발적 기분’에 살고 있는 이유를 ‘고국이 없고 민족의 목표가 없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하얼빈을 ‘에로도시’로 호명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 가운데 젊은 여성들이 ‘여창’ ‘딴서’ ‘매음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신기석의 하얼빈은 나라 잃은 백계러시아인들의 삶이 퇴폐적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씨야 사람들의 활발한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다’³²⁾라는 심연수의 여행기와는 대조되는 시선이다. 정치적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심연수였음을 고려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려낸 하얼빈 여행기는 신기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제의 정치적 자장 안에서 그들의 정치적 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분명히 노정하고 있다. 북국유자 또한 그런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어쩐지 무시무시한 살인적 풍경이 도는것같고
반면으로 찬란한 환락의 밤을
연상시킨다.

음탕한 계집들의衬衣 돈을달라고
아양을떨며 향기높은 양주와 소란한
짜즈와 에로틱한 무용으로
합이빈의 밤은 새여간다. 합이빈의
가치는 낮보다도

31) 신기석, 『만유잡기』, 위의 책, p.411.

32) 이상규 편,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1집 심연수 문학편』, 중국조선족문화 예술출판사, 2004, p.498. 심연수(1918~1945)는 강원도 강릉군 경포면 난곡리 태생으로 5남 2녀 중 장남이다. 그의 나이 7세 때인 1925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했다가 1931년 구소련의 조선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정책 이후 간도로 이주하여 밀산, 용정 등에서 산다. 1940년 22세의 늦은 나이에 동흥중학교를 졸업하며, 1941년 일본 유학길에 올라 일본대학 창작과에 입학, 1943년 7월 졸업한다. 1943년 용정으로 귀환, 진성국민우급학교, 성서국민우급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한다. 1945년 백보배와 결혼하며, 그해 8월 근무처인 영안현에서 아내가 있는 용정으로 가던 중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살되었다. 이듬 해 1월 유복자 심상룡이 태어난다. 그는 총 321편 정도의 시를 남겼으며 이국땅에서 민족문학을 지켜낸 시인으로 운동주에 비견되곤 한다.(황규수, 『심연수의 삶과 문학』, 『한국문예비평연구』 26권, 2008, pp.261-269.)

밤에 있으며 사랑(戀)보다도 육에있다.³³⁾

‘국제의 도시, 음란의 도시, 밤의 도시, 음악의 도시’로 하얼빈을 규정하고 있는 북국유자는 하얼빈에서 ‘정의니 인도니를 구한다면 우열한밖에는 될 게 없다’라고 못 박는다. 나아가 북국유자는 하얼빈의 병원 간판이 ‘임질매독 전문치료’라는 ‘간판뽀’이라면서 하얼빈의 음탕함을 병원 간판을 들어 강조한다. 그리고 갱단의 준동을 언급하면서 “지금에는 일본내지인의 세력이 커지면서 치안이 정돈되어서 갱의 세력도 점점 없어 갈 것이라는 것을 부언한다”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만주국에 뽀치고 있는 일제의 정치력을 선전하는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하얼빈이 환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라는 것을 다른 여행기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노래다—춤이다. 그리고 술이다. 『빠치카』의 불길이 어울거린다. 스텔을 맞추는 경쾌한 발굽소리가 깊은밤 청춘의 향락을 최고조로 충동한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온다. (중략) 나체가 춤을 춘다. 매춘부의 간사한 웃음소리가 지터가는 겨울밤을 역겨 놓는다.³⁴⁾

두시가 넘어 조용한 거리에 色瓦斯가 번뜩이는 뒷골목……카바레—의 지하실에서는 나체무희의 亂舞가 무르녹은 수박같이 흐느적거리는 육체를 뒤 흔든다. 보기 드물고 보기 어려우며 조선 안에선 상상도 못할 괴풍경의 하나다. (중략) 도덕이란 전체를 무시하는 에로전위대이다.³⁵⁾

33) 북국유자, 『합이빈야화』, 『백광』, 1937년 1월호, p.91.

34) 최영수, 『겨울의 할빈-눈 오는 밤의 정숙』, 『신동아』 38호, 1934년 12월호, pp.151-152.

35) 최영환, 『합이빈의 밤』, 최삼룡·허경진 편, 앞의 책, p.470.

최영환은 하얼빈을 ‘극동의 환락경, 북국의 화도(華都)’³⁶⁾로 호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퇴폐성을 고발하는 여행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하얼빈이 음악의 도시라는 것을 대부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다. 음악이 ‘팬스’ ‘카페’ ‘카바레’ 등 환락적 요소와 조합을 이루는 것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백계러 시아인들과 음악이 밀접히 상관되어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다. 이 효석의 소설 『벽공무한』의 주인공인 천일마가 하얼빈교향악단을 초청하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되는 것도 하얼빈이 음악의 도시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로써아 사람들이 음악을 얼마나 좋아한다는 것은 거이 세계적으로 알린 바이니 여기서 구구히 늘어놓을 필요가 없지만 **길수거리에 거지까지도 음악가(?)들인지 수퐁금하나식은 다 들고다닌다.**³⁷⁾(강조: 인용자)

시립공원은 굉장히 넓다. 여기에는 첫째로 대음악당이 있고 그리고 대소극장이 상당히 있으며 카바레-가 여기저기 수목의 사이에 산재하여 있다. (중략)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대관현악단의 연주가 있어 청아한 음률은 산보인의 정신을 매혹시키고도 남는다. 樹下의 테블을 둘러싸고 청량음료를 마시며 음악을 듣는 심정이란 하르빈의 여름밤-이곳이 아니면 맛보지 못할 위안이오 향락이다.³⁸⁾

그런 중에도 더욱 길손(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은 길머리에 제멋대로 노힌 ‘썸취’에 안저서 손퐁금을 뜻고잇는 가두악사라는 것이었다.³⁹⁾

36) 위의 글, p.467.

37) 북국유자, 앞의 글, p.93.

38) 최영환, 앞의 글, p.469.

39) 엄시우, 『합이빈의 외국정서』, 『만선일보』, 1940. 5. 23.

하얼빈 여행자들의 공통적인 감각은 백계러시아인들의 음악적 취향에 대한 관심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겨운 애수’를 연주 속에서 읽어내는 것이다. 나아가 가두악사를 ‘슬픔의 주인공’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필자가 백계러시아인들이 처한 정치적 현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손풍금이 때로는 ‘뜻모를 눈물과 아련한 한숨을 내쉬게 하는 것도 하르빈만이 가질 수 있는 천부의 특징’⁴⁰⁾으로 읽어내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런 동병상련은 어김없이 하얼빈의 부정적인 이면 세계를 고발하는 장으로 이어진다. 이 또한 필자들이 시세(時勢)에 순응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고도의 정치적 감각이다.

‘환락’이나 ‘향락’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뭇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최영환과 최영수의 글은 잘 보여 주고 있다. 최영수는 ‘향락’을 퇴폐적·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최영환은 자유로움과 위안으로 간주하며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시선의 차이는 의미의 차이를 추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하얼빈이 환락이나 향락의 도시로 이미지화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편의 유통과 흡입이다.

아편이다. 한 대 두 대 쪽쪽 드리킨다. 극도로 피곤한 그들의 육체에 놓은 캄풀주사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의 생명을 지속하는 것이고 한에 넘치는 향락에 지새는 것이다.⁴¹⁾

엄시우는 백계러시아인 여인의 7할이 밤의 여인으로 전락한 이유가 아편 때문이고 3할은 생활고 때문이라고 전한다.⁴²⁾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40) 위의 글.

41) 최영환, 앞의 글, p.470.

것이 아니어서 신빙할 수는 없지만, 백계러시아 여인의 상당수가 ‘밤의 여인’으로 전락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백계러시아인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1932년 2월 5일, 관동군은 덩차오(丁超)가 이끌던, 반일군벌부대인 하얼빈 호로군(護路軍)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하얼빈에 입성하여 중국인과 러시아인들의 거리였던 하얼빈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후 왕도낙토, 오죽협화를 내건 만주국이 3월 1일 개국하나 사실 방약무인한 일본인들이 횡행하게 된다. 조국이 없던 백계러시아인들에게 하얼빈은 안주의 땅이었으나 일본인은 무력을 앞세워 그들의 회사나 주택을 일방적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백계러시아인들은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⁴³⁾ 생계 수단이 절실했던 백계러시아인들에게 환락과 퇴폐는 타락의 지표가 아니라 삶의 지표였던 셈이다.

엄시우는 백계러시아인 뿐만 아니라 아편을 매개로 한 조선인 불륜 남녀 이야기를 고발하기도 한다. ‘현해탄 저쪽에서 사귀 번으로 그 때 학생층에서는 상당한 존경과 연애도 무던히 해본’ 조선인 아편쟁이 ‘임원훈(林源勳)이 남의 집 외투를 훔치다 발각되어 길바닥에서 치도곤을 당하는 에피소드의 고발이 그것이다.⁴⁴⁾

조선인이 아편 같은 부정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이 토지 소유와 임차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기가 여의치 않자 모르핀과 헤로인의 불법 판매에 종사하게 되었던 것이다.⁴⁵⁾ 그런데 당시 일제는 관민이 일체가 되어 중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

42) 엄시우, 『합이빈의 외국정서』, 앞의 글.

43) 岩野裕一, 『滿洲-知られざる音楽史, 王道樂土の交響樂』, 音楽之友社, 1999, p.108.

44) 엄시우, 『외근기자의 하로』, 『만선일보』, 1940. 12. 15., 17.

45) 박강, 『만주국의 아편마약 밀매대책과 재만 한인』, 『한중인문학연구』 19집, 2006,

편과 마약 밀거래에 관여하고 있었다.⁴⁶⁾ 재원 확보를 위해서였다. 조선인들의 생계 수단과 일본제국의 재원 확보라는 정책이 맞물려 조선인들의 아편업 종사는 쉬운 돈벌이 수단이었다. 1922년에 작성된 한 일본 영사관 보고에 의하면, 하얼빈에서 아편 거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한 달 동안 약 18,000kg이 거래되었는데, 그 중 일본인이 4,200kg, 중국인이 9,000kg을 취급한데 비해 한인은 러시아인과 같은 양인 2,400kg을 취급하였다고 한다.⁴⁷⁾ 치외법권이 철폐(1937년)되어 일제로부터 신분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궁핍이라는 발목으로부터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얼빈 같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아편 흡연이나 판매의 유혹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1937년 9월경에 만주국은 아편 및 마약 부정업자 약 1만 명에 대한 검거 방침을 세운다. 단속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日滿 관헌의 검거 수는 대사관(영사관 관내) 內地人 412, 鮮人 2428 계 2840, 關東局(부속지주내) 內地人 187, 鮮人 400, 滿人 699 계 1286, 滿側(현재까지 판명분) 滿人 1483, 露人 10 계 1493 총수 5619명, 단 위 가운데 약 1할은 아편마약류 부정업자 이외의 중독자, 불량자 등이다.⁴⁸⁾

이 가운데 하얼빈에서 검거된 조선인은 약 600명, 20%에 육박하는 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 만주로 유입되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마약과 연관된 부정업자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엄시우의 『합이빈시암흑가탐방기』⁴⁹⁾에는 아편쟁이들의 아편 흡입하는 모습이 적나라하

p.463.

46) 박강(2003), p.318.

47) 위의 글, p.325.

48) 박강(2006), p.483.

게 그려져 있다. ‘일급신사로 자부하는 모씨’가 ‘아편뽕치를 매매’한다던가 조선여성이 생활고로 매춘을 나선 실상을 알고 난 뒤 하얼빈의 암흑가를 ‘인생지옥’으로 규정한다. 이효석은 ‘숨어서 거래하는’, ‘중국이나 만주 백성들을 등골부터 녹여내는 약⁵⁰⁾으로 일가를 이룬 『대륙당』의 ‘한운산’을 『벽공무한』에서 적절히 그려낸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필사적’으로 부정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은 운명적 유랑인이었다.

이런 하얼빈에 서린 비애를 뒤로 하고 여행지는 하얼빈의 밤 문화를 즐긴다. 커피 한 잔으로 이국정서를 맛보기도 하지만, 러시아 향토예술인 ‘밴드’에 맞추어 ‘하르빈 밤 거리의 명물인 카바레’에서 ‘위스카(露國酒名)’를 마시면서 여행지는 밤의 거리에서 이국정서에 흠뻑 빠져 든다. 카바레 입구의 ‘썬스’ 그림과 함께 ‘日本語を解る美女群が居る⁵¹⁾’라는 안내 문구는 카바레가 유혹하고자 하는 주 고객이 일본인임을 명확히 한다. 조선인 여행객도 의사(疑似) 일본인이 되어 카바레 지하실문 앞에 서서 입장객을 안내하는 ‘신장이 구척은 되고 코는 주먹 같은’ <녀석>의 굽실거리는 허리를 <내려다보는> 체체하는 몸짓을 잊지 않는다. 내면의 식민지화에 몰들어가는 조선인은 어쩌면 스스로 2등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IV. 이효석의 만주 기행문 들여다보기

이효석은 1939년 여름⁵²⁾ 하얼빈을 여행한다. 숭실전문학교가 신사참배

49) 『만선일보』, 1940. 6. 22.~25.

50) 이효석, 『벽공무한』, 『이효석전집』 5, 창미사, 2003, p.67.

51) 엄시우, 『합이빈의 외국정서』, 『만선일보』, 1940. 5. 25.

52) 김윤식 교수는 8월 하순이나 9월 초에 이효석이 하얼빈을 여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거부를 이유로 1938년 3월 31일자로 폐교되자 같은 날자에 학교를 퇴임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⁵³⁾ 숭실전문학교의 폐교가 당시 점증하던 전쟁 확산의 분위기와 맞물린 정치·군사적 이유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효석의 퇴임 후 행보와 하얼빈 여행도 그 연장선상에서 새겨보아야 한다. 특히 창씨개명과 신체제에 합당한 글쓰기를 강요받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하얼빈 여행의 단상은 수필 『大陸の皮(대륙의 껍질)』⁵⁴⁾와 『벽공무한』⁵⁵⁾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는 1940년 하얼빈을 재차 방문한다. 여행의 단상은 단편 『哈爾濱』⁵⁶⁾과 수필 『新しさと古さ(새로운 것과 낡은 것)』⁵⁷⁾로 그려진다.

하얼빈에는 국적이 다른 많은 외국인이 잡거해 있는 탓에 그 혼잡함이 한층 컸다. 그 중에는 신흥 기세와 몰락의 입김이 서로 짜여져 명암 이중주를 이루어 특수한 거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가멸지긴 하나 슬픈 거리였다. 사람으로 하여금 갖가지 감상으로 몰아가는 곳. 귀로, 봉천에서 중앙공원을 걷고, 영화관에 잠시 들렀을 때, 뜻밖에도 눈시울이 젖어왔다. 나그네 길의センチ멘털한 심사랄까. 피로한 여로에서 오는 마음의 폭발이었는지 모를 일.⁵⁸⁾

이효석이 바라보는 하얼빈은 출발부터 남달랐다. ‘나그네 길의センチ멘털한 심사’ 혹은 ‘피로한 여로에서 오는 마음의 폭발’로 변명하고 있지만 하얼

있다.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3, p.273.

53) 숭실전문학교가 폐교된 뒤 퇴임을 한 이효석은 1938년 7월 1일자로 개교한 대동공업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사망할 때까지 근무한다.

54) 『경성일보』, 1939. 9. 15.~19.

55) 『매일신보』, 1940. 1. 25.~7. 28.(연재 당시에는 소설명이 『蒼空』이었으며, 『벽공무한』으로 개제(改題)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함.)

56) 『문장』 19호, 1940. 10.

57) 『만주일일신문』, 1940. 11. 26.~27.

58) 이효석, 『대륙의 껍질(大陸の皮)』, 『이효석전집』 7, p.258.

빈에 대한 인상은 ‘슬픈 거리’로 압축된다. 그 내면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신흥 기세와 몰락’의 ‘명암 이중주’가 가로놓여 있다. 신흥 기세가 일제와 유관하다면 몰락은 백계러시아인들의 상징이다. 일제의 정치적 기세에 부응하는 글쓰기였다면 아마도 이효석은 ‘신흥 기세’에 대해서만 언급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효석은 ‘몰락’을 함께 말함으로써 정치적 균형 감각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이효석의 감각은 이내 새로운 감성으로 이어진다. 바로 예수이다. 이 예수는 동정의 마음이며 동병상련의 마음이다.

로시아인 근거구 키타이스카야 거리에서조차 거기를 활보하는 얼굴 종류는 수에 있어 양자(로시아인과 동양인: 인용자)가 비슷할 정도였고, 자칫하면 이쪽 얼굴이 더 우세하게도 보였다. 거리의 예수는 거기에서 왔다. 곧, 눈에 보이는 사이 세력을 잃고, 숫자가 줄고 점점 뿌리와 터전을 후자에게 이양했다는 모습이 손에 잡힐 듯이 보였다. 외국인이라 하나 백계 로시아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폴란드인,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 기타 각 종족이 점거하고 있어 그들이 점차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음이 애달픔을 재촉하고 있었다.⁵⁹⁾

이효석은 백계러시아인들에게서 자아내는 ‘예수’의 구체적인 원인을 ‘뿌리와 터전을 후자에게 이양’해주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데서 찾는다. 여기서 이효석이 말하는 ‘후자’는 포괄적으로 ‘동양인’을 지칭하나 기실 하얼빈을 정치·경제적으로 접수한 일제를 염두에 둔 말이다. 에둘러 정치적 감각을 드러내는 글쓰기 방식은 이효석이 이 글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이런 정치적 감각은 다음 대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가라든가 단체사회란 반드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확대받고 있는 개인의 모습이란, 신의 안목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나, 좌우간 바라보

59) 위의 글, p.259.

기 민망할 지경이었다. 이런 생각이 만일 센티멘털이라 한다면 신에 대해 그 근거에서부터 두드려 고쳐 놓지 않으면 안되리라.⁶⁰⁾

국가의 부강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이효석이 처한 현실의 되새김질이다. ‘학대받고 있는 개인의 모습’은 국가가 부강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을 이효석은 비단 백계러시아인들만의 문제로 국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몰락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갖게 된 이효석의 애수는 백계러시아인에게 감정이입된 것이고, 국가나 단체사회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다. 자신의 생각이 ‘센티멘털’이 아님을 천명함으로써 이효석은 정치적 감각을 문학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은 이 지점에서 이효석의 친일성 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감각은 다음 인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9월에 접어들어 독일과 폴란드 전쟁 뉴스로 역시 가두는 표연해졌다. 하루에 몇 번씩 호외가 날고 신문팔이의 높은 외침 소리에 행인들은 선 채 흥분된 표정을 띠고, 남에게 들리지 않게 서로 속삭이였다. 가을바람이 불어 거리는 소연해져 한층 소연함을 더했다. 내온이 꺼진 밤거리는 한층 어두웠고, 오직 하나, 경기가 좋은 곳은 국방복의 여행자들의 방자한 외침이 있는 곳이다. 때를 지어 거리를 제것인 듯 멋대로 걸으며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른다. (중략) 사람들의 빈축 속에 아무리 보아도 볼 만한 풍경은 아니다. 이러한 우열한 경솔함은 단단히 삼가야 하는 것, 제멋대로 하는 것의 흉내내기란, 인간성에 있어서는, 한 걸음 졌다는 사실을 증명함에 지나지 않음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홀이나 카바레를 더메고 있는 것도 정해 놓고 이러한 패들인데 방약무의한

60) 위의 글, pp.261-262.

짓거리는 거의 어울러가는 분위기를 망쳐 버린다. 자기만의 세계인 줄 알고 있는 모양이다. 나차라 슈라는 이런 패들의 수많은 파렴치한 사례들을 내게 들려주었다. 듣고 나자 아연할 수밖에. 두말없이 견디고 있는 약한 자는 이것을 모른 척 그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⁶¹⁾ (강조: 인용자)

독일과 폴란드의 전쟁 소식을 전경에 내세운 이 인용에서 두드러지는 대목은 ‘국방색의 여행자’와 관련된 것이다. 굳이 ‘국방색’을 강조한 것은 현재 민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전쟁을 상징할 터이고, 따라서 ‘국방색 여행자’들은 제국의 표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방색 여행자’들이 하얼빈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방자한 외침’으로 비유된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제멋대로의 행태를 ‘우열한 경솔함’이라거나 ‘인간성에 있어서는 한 걸음 족다’라고 날카롭게 꼬집는다. 이런 행태를 ‘두말없이 견디고 있는 약한 자’는 모르고 있지 않고 다만 ‘모른 척 그 이상 관여하지 않’을 따름이라는 표현은 내면의 속삭임이며, 이효석의 정치적 감각의 드러남이다.

이러한 감각은 그의 두 번째 여행기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특히 두 번째 여행기에서는 만주를 <넓은 것/새로운 것>의 대립의 장으로 그리고 있다.

참으로 신경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발전하는 만주의 상징처럼 보이는 것이다.

빈터를 다져 포장하고, 거기에 어느새 근대 건축이 들어선다. 굉장한 행정 건물이 솟고 회사, 상회 회관이 나란히 솟고 그라운드만큼 넓은 거리에는 수목이 아름답게 로터리를 장식하고 가로를 달린 끝에는 형편없이 큰 스튜디오가 뽑아졌다. 이 새로운 거리를 걷는 사람은 모두 발랄하며 여기서 발행되는

61) 위의 글, p.262.

일간신문은 당당하고도 훌륭한 체재를 갖추었으며 연감에 수록된 작품은 다 채롭고 젊다.⁶²⁾

새로움의 발랄함을 앞세운 만주의 발전은 우선 보기에 좋다. 행정 건물이나 회사, 상회 회관으로 지칭되는 근대의 상징물들은 '굉장하다.' 하지만 '굉장한' '발랄함' 이면에 숨겨놓은 이효석의 본심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 눈 아래의 거리는 사실 작년 여행에서 본 그 거리는 아니다. 각각으로 변하는 인상이 속일 수 없는 자취를 거리에 적어간다. 오고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변했거니와 모든 풍물이 적지 아니 달라졌다. 넓고 그윽한 것이 점점 허덕거리며 물러서는 뒷자리에 새것이 부락스럽게 밀려드는 꼴이 손에 잡힐 듯이 알려진다. 이 위대한 교대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하얼빈의 애수는 겹겹으로 서러워 가는 것이다.⁶³⁾

1차 하얼빈 만주 기행과 2차 만주 기행을 통해 이효석이 분명한 차이를 느낀 것은 '각각으로 변하는' '거리'의 모습이다. 더불어 오가는 사람들의 변한 얼굴이다. 그 변화의 모습을 이효석은 대비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넓고 그윽한 것/새것', '허덕거리며 물러섬/부락스럽게 밀려듦'이 그것이다. '허덕거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힘에 부쳐 자꾸 찢찢매거나 괴로워하며 애쓰다'라는 뜻이며, '부락스럽다'는 이효석이 즐겨 쓴 방언으로 '생김새가 험상궂고 행동이 거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넓고 그윽한 것은 오랜 동안 하얼빈을 지킨 전통의 것이라면, 새 것은 일제에 의해 새로이 수용되거나 건설되던 것일 텐데, 이들을 수식하는 수식어의 의미가 그것을 바라보는 이효석의 내면세계를 가감 없이 드러낸 표현인 셈이다. 험상궂고

62) 이효석,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이효석전집』 7, pp.316-317.

63) 이효석, 『합이빈』, 『이효석전집』 3, pp.109-110.

거친 행동에 어쩔 수 없이 찢찢매거나 괴로워하며 변해 가는 하얼빈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위대한 교대’라 호명했지만, 그 이면에서 이효석은 ‘겹겹으로 서러워가는’ ‘하얼빈의 애수’를 읽어내고 있다. 그 애수는 ‘넓고 그윽한 것’에 대한 애정의 다른 이름이다.

새로움의 일색으로 무엇이든 부셔 버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기왕의 것은 그것을 사랑하고 입김을 불어넣고 생생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간단한 의지로 망치게 하지않고 이어가기, 오히려 이런 방향에서야말로 새로운 것을 조화해야 할 터이다. 마차의 저 풍경은 언제든지 근사한 것이며 처녀들의 독자적인 의상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함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⁶⁴⁾

새로움이 ‘무엇이든 부셔 버리는 것’이라면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은 만주식 근대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제언이면서, 제국의 지배담론에 가하는 일침이다. 그래서 이효석은 새로움과 낡은 것(전통)의 대립에서 무게를 두는 것은 낡은 것이다. 다음의 인용은 그것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이 가을에 친지 두 사람이 뒤따라 하얼빈에 왔다. 한 사람은 음악을, 또한 사람은 무용을 공부하기 위함이었다. 두 사람 다 동경東京으로 가느냐를 두고 새삼 기회를 엿보고 있던 판국, 결국 하얼빈을 택한 것이다. 전통의 오래됨이 두 사람을 이끌었으리라. 성악을 수업해서 미국에 가고자 하는 젊은이도 발레로 입신하고자 하는 젊은이도 함께 전통의 순수함에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⁶⁵⁾

조선인이 닦고자 했던 근대의 통로 동경, 나아가 근대의 종착역이었던 미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전통’의 하얼빈을 선택한 두 젊은이의 순수함

64) 이효석, 『새로운 것과 낡은 것』, p.319.

65) 위의 글, p.319.

을 높이 평가하는 이효석은 일관되게 “깊이 뿌리내려 살아 있는 것은 지키고 키우는 것”⁶⁶⁾이 마땅하다고 피력한다. 이런 정신은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이 싹틔운 것이다. 그런 생각의 일단을 다시 엿볼 수 있는 것이 다음의 인용이다.

영사 도중에서 화폭이 끊어지고 관내에 불이 켜지더니 라우드 스피커가 싱가포르 함락의 특별 뉴스를 일러준다. 아나운서의 성도聲導—로 관중이 만세를 화창하다. 거리에 나서니 어딘지 없이 소연한 기색이 떠돌며 축하의 장식 등이 벌써 눈에 뜨인다.

S와 헤어져 바로 집으로 향하다. 찬바람을 쏘인 까닭인지 몸이 좀 거북하다. 밤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몸이건만.⁶⁷⁾

싱가포르 함락⁶⁸⁾ 소식에 거리는 ‘어딘지 없이 소연한 기색이 떠돌며 축하의 장식’이 내걸렸지만, ‘찬바람을 쏘인 까닭’이라고 핑계를 삼은 ‘몸이 거북’해지는 감정이 이효석의 내면에는 자리하고 있다. 전쟁의 승전보에 ‘몸이 거북’해지는 이효석의 미묘한 감정선이 만주 기행문 혹은 만주 기행을 소재로 한 그의 소설을 관류하는 정신이다.

결국 제국의 지배 담론이 미치는 범주 안에서 만주 기행문이라는 불편한 글쓰기를 통해 이효석이 드러내고자 한 것은 지배 담론에 어깃장 놓기이다. 비록 지배 담론의 자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지만, 지배 담론을 모방, 재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소성에 근거하여 이질적인 모습을 재배치하면서 담론적 균열을 기획한 것이 이효석의 만주 기행문이었다.

66) 위의 글, p.320.

67) 이효석, 『『풍년가』 보던 날 밤 - 전시戰時 작가 일기』, 『이효석전집』 7, p.350.

68) 싱가포르는 1942년 2월 15일에 함락되었다.

아울러 2차 만주 기행과 관련된 작품들에서 아내 이경원의 사망에 따른 비애감을 찾기는 어려웠다. 고도의 글쓰기 방식으로 슬픈 감정을 행간 속에 숨겨놓았다 하더라도 이효석의 신변에 일어난 큰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그 비애감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애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경원이 살아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V. 결론

절필이나 친일이 아닌 방식으로 문인들이 혹독한 시기를 건디는 방법은 현실을 우회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그려내는 것이다. 이효석의 눈에 ‘멸망의 길로 향하는 민족의 표본’⁶⁹⁾으로 비친 백계러시아인과 조선인의 공통점은 ‘고국이 없고 민족의 목표가 없는’ 것이며, 이런 감각이 하얼빈을 통해 이효석의 애수를 만들어 냈다.

만주 기행을 소재로 한 소설 『합이빈』에서 이효석은 주인공의 입을 빌어 “나는 이 변화를 보려고 해마다 오는 것일까”⁷⁰⁾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효석이 하얼빈에서 본 풍경의 실체를 생각하면 이런 표현은 자탄이다. 유진오는 ‘풍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느꼈다’⁷¹⁾고 했지만, 유진오와 이효석이 본 ‘변화’-새로운 역사-는 등질의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해왔다. 하나는 이경원의 사망년도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효석의 만주 기행문과 여타 작가들의 만주 기행문이 보여준 감각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69) 이운곡, 앞의 글, p.98.

70) 이효석, 『합이빈』, 『문장』, 1940. 10, p.3.

71) 유진오·이효석, 『한국소설문학대계』 제16권, 동아출판사, p.286.

우선 기왕의 논의들에서는 이경원의 사망년도를 1940년으로 확정하고 있으나, 필자는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그녀의 사망년도가 1941년일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이 논문의 논의를 토대로 이경원의 사망년도가 바로 잡힐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많은 여행서사들에서는 하얼빈을 애로와 향락의 도시로 호명하면서, 국책에 부응하는 듯한 모습들을 취하고 있었음에 비해 이효석의 기행서사는 오히려 교묘한 방법으로 국책에 대한 담론적 균열을 띄우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효석의 이런 글쓰기는 이효석의 작가정신이나 그의 문학에 담긴 정치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나아가 친일성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를 달리하여 이효석의 『벽공무한』과 『합이빈』에서는 수필에서 보여준 담론적 균열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이효석전집』 1~7, 창미사, 2003.
『이효석전집』 1~6, 서울대출판문화원, 2016.

2. 논문 및 단행본, 기타

- 강혜중, 『20세기 ‘국제도시’의 기억-1920~30년대 조선인의 만주기행문 속 하얼빈』, 『중국학논총』 34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11, p.99.
김남천, 『孝石과 나』, 『춘추』, 1942년 6월호, p.118.
김윤식, 『이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3, p.273.
박 강, 『만주사변 이전 일본과 재만 한인의 아편·마약 밀매 문제』,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35집, 한중인문학회, 2003, p.325.
박 강, 『‘만주국’의 아편마약 밀매대책과 재만 한인』, 『한중인문학연구』 19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p.463.
방건두, 『북만주유기』, 『조선일보』, 1935. 5. 24.
북국유자, 『합이빈야화』, 『백광』, 1937년 1월호, p.91.
신기석, 『만유잡기』, 최삼룡·허경진 편, 『만주기행문』, 보고서, 2010, p.411.
엄시우, 『합이빈의 외국정서』, 『만선일보』, 1940. 5. 25.
엄시우, 『외근기자의 하로』, 『만선일보』, 1940. 12. 15., 17.
윤휘탁, 『만주국 정부의 민족 구성과 운영상의 특징』, 『중국근현대사연구』 43집, 중국근현대사학회, 2009, pp.303-305.
이경원, 『生活의 散語-소설가이효석씨부인』, 『삼천리』 1940년 4월호, pp.298-299.
이상규 편,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1집 심연수 문학편』, 중국조선족문화예술출판사, 2004, p.498.
이상욱, 『이효석-문학과 생애』, 민음사, 1993, pp.288-295.
이운곡, 『哈爾濱의 露人 에미그란트』, 『조광』, 1939. 8, p.98.
임성모, 『1930년대 일본인의 만주 수학여행 - 네트워크와 제국의식』, 『동북아역사논총』 31호, 동북아역사재단, 2011, p.175.
최영수, 『겨울의 할빈 - 눈 오는 밤의 정숙』, 『신동아』 38호, 1934년 12월호, pp.151-152쪽.

- 최영환, 『함이빈의 밤』, 최삼룡·허경진 편, 『만주기행문』, 보고서, 2010, p.470.
- 한석정, 『만주 모던 -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016, pp.64-65.
- 홍양명, 『哈市東滿間島瞥見記』, 최삼룡·허경진 편, 『만주기행문』, 보고서, p.380.
- 홍종인, 『애수의 하르빈』, 최삼룡·허경진 편, 『만주기행문』, 보고서, 2010, 여기저기.
- 황규수, 『심연수의 삶과 문학』, 『한국문예비평연구』 26권, 2008, pp.261-269.
- 岩野裕一, 『滿洲-知られざる音楽史, 王道樂土の交響樂』, 音楽之友社, 1999, p.108.

Abstract

A Study on the Death Year of Lee Kyung-won
and Lee Hyo-seok's Manchurian Travelogues

Roh, Sang-rae

Lee Hyo-seok traveled to Manchuria (Harbin) twice in 1939 and 1940. After these trips, he published travelogues in the form of novels and essays: a novel titled '*Byukgongmoohan*' and an essay titled '*大陸の皮(The Skin of the Continent)*' after his first trip, and a novel titled '*Harbin*' and an essay titled '*新しさと古さ(The New and the Old)*' following his second trip.

In point of fact, there are certain important factors related to the death year of Lee Kyoung-won, Lee Hyo-seok's wife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n connection with these two trips.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she died in January 1940. Apparently, her death should have affected his second journey and the subsequent travelogues in some way or the other. However, most of the documents point out that she died in January 1941. If this is the case, it would be difficult to argue that the feelings attached to her death are smeared in the second trip narratives. This is an important point to consider for any researches about Lee Hyo-seok's literary works.

In addition, in the present work, an attempt has been made to reveal the differences between Lee Hyo-seok's gaze and other writers' point of view on Harbin in their travel writings. The fact that Lee Hyo-seok maintained a different perspective compared to other writers, who focused on the hardships and pleasures in Harbin, might be contributable to some extent on the examination of pro-Japanese activities of Lee Hyo-seok.

Key Word: death year of Lee Kyoung-won, travelogue, Harbin, sorrow, pro-Japanese

노상래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yunc82@ynu.ac.kr

이 논문은 2018년 10월 22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